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教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9월 4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7월29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42호 수

시드니 현대미술관 앞 행사장에 점등식이 지난 8월28일 진행됐다.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일주문너머로 시드니 대표건축물인 오페라하우스가 보인다.

■ '1700년, 한국불교의 지혜' 호주를 흔들다 ▶관련기사 7면

'아름답다' '인상적이다' 극찬

준비부터 회향까지
시드니 정법사와 진행

전통불교문화 체험장
현지인 2만여명 '북적'
한발 더 가까이 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드니총영사관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후원하는 '170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등 대표단이 지난 8월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이자 한국불교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뉴욕, 파리 등에서 진행한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예년의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과 달리 이번 시드니 행사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근 현대미술관 광장에 설치된 한국불교문화 체험장에는 5일간 1만여 명의 현지인들이 컵등 만들기, 단청그리기, 단주 만들기와 인경체험에 참가했고, 전통등 전시회, 닥종이 인형전을 관람했다. 현대미술관 인근이 시드니인들의 휴식처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단순 관람객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 뉴욕과 파리가 정관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거나,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한 것과 달리, 이번 행사에서 정관계 외에 호주불교연합회 연계해 행사를 치른 것 또한 새로워진 모습이다. 호주불교연합회 초청오찬과 국회의사당 리셉션 및 정관계 만찬을 함께 하면서 태국, 베트남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과 인연을 맺는 것 외에도, 정관계 인사들에게 호주불교의 단합된 모습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전달했다.

현지 사찰인 정법사를 준비단계에서부터 결합시킨 것도 처음 시도된 일이다. 이는 종단이 주관한 행사 후에도 정법사가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불교를 알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는 취지에서다. 정법사 스님과 신도들은 준비부터 행사전반까지 참여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데 일조했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불교 세계화 행사는 문화체험장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며 "한국불교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총무원장 선거, 추대에서 경선 선회

보선스님 출마선언
"종헌종법 입각
종단 운영" 밝혀

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사진〉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선스님은 지난 8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선스님은 '국민이 신뢰하고 종도가 존경하는 조계종을 구현하겠습니다' 라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정법의 정신과 종헌종법에 입각해 종도가 공감하는 종단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보선스님은 특히 종단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 불교를 구축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성실하게 참여하고 전심전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스님은 "교구장 스님, 종회의원 스님, 교육과 전법, 복지 문화의 현장에 있는 스님들, 신행단체, 시민사회단체, 재가불자들과 끝없이 부지런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공감을 이루고 방편지혜를 얻어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이 이뤄내신 성과를 더욱 굳건하게 계승해 종단이 지속가능한 시대의 불사를 성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보선스님은 이날 출마의 변에 앞서 "갖춘 것 없고 수행이 부족한 소납을 어느 종단 보다 크고 많은 일을 안고 있는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해 주신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과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옛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 등 3개 종책모임은 지난 8월29일 보선스님을 34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밝혔다. 이들 3개 종책모임은 8월30일 후보 추대를 공식화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9월2일 선거대책위 구성과 종책 방향, 원칙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33대 집행부 성과 자료집 발간

4개년 발전계획 수립
쇄신입법 등 35영역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제33대 집행부 성과 자료집〉이 나왔다. 총무원은 지난 8월29일 "이 자료집은 지난 2009년 10월31일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주요 종무기록 및 성과를 기록했다"며 "집행부 사상 최초로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제33대 집행부는 성과 총평을 통해 "사회와 역사 앞에 나서서 소통했으며, 종무행정을 중심으로 불교중흥을 모색했다"며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승가교육 전면개선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또 "자성과 쇄신을 통해 종단 운영의 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 ▶성과와 총평 6면

주요 성과분야로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소임, 승가교육 제도개선, 종무행정 강화, 자성과 쇄신,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으로 구분했다. 영역별로는 쇄신입법 제정 및 시행, 화쟁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출범,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행자교육과정의 체계 정립, 통합 종무행정프로그램 개발, 군 전법도량 건립,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노력 등 총 35가지로 구분 정리했다.

제33대 집행부는 종단의 미해결 과제 및 중장기 과제로 △희망과 신뢰의 한국불교 구현 △통합적인 종단 운영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종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종무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집행부는 지난 1월부터 종단 차원의 평가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무자 워크숍, TFT 등을 구성해 성과를 정리해 왔다. 홍다영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 1년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 '부처님 가르침' 보여주다

'동사섭 법회'·심리치유
상담센터 도반·템플 등
다가가는 기구로 발돋움
비정규직 등 과제도 많아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사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제33대 조계종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기치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8월27일 발족한 노동위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노사분규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외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종단 역사상 최초로 노동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계는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왜 불교인들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불교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노동문제가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불교인들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제도는 인간의 심성을 오그라들게 하기 때문에 비불교적인 법이다. 우리사회에서 90% 이상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노동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임을 자각해야 한다.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그때그때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펼쳤듯이 자본의 얼굴이 아닌 노동자의 모습으로 아픔을 어루만져야 한다.

노동위는 출범과 동시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10만배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100일 10만배 정진기도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위의 진정성을 알리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2년 12월25일 10만배 정진을 회향하며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을 창출할 새로운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바로 노동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실시하는 동사섭 법회다. 평균연령 50대 이상의 청소노동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법회에 초청해 이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 심리치유 상담센터 도반 운영을 비롯해 해고·파업 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노동위원장 스님을 비롯한 2~3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지만 내부 역량을 키워나가고 불교 내부 저변 확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노동문제와 불교를 접목시킨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노동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장 종호스님은 "많은 스님들과 사찰이 노동위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지치고 힘든 노동자들에게 불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제2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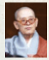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제2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증명 : 중심문도회(대표 : 회주) 학송 심경스님 ◆ 일시 : 2013년 9월 1일 ~ 12월 9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첫째날
9월 1일
입재법문
혜인스님
은해사조실, 제주약천사 회주

● 23일차
9월 23일
특별초청법회
성담스님
효심사 주지


● 36일차
10월 6일
이동법회
송담스님
인천 용화사

● 100일차
12월 9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9월 1일 (日)	혜인스님	은해사조실, 제주약천사 회주
2일차	9월 2일 (月)	활안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3일차	9월 3일 (火)	관일스님	보현사(법사)
4일차	9월 4일 (水)	묘각스님	묘현사 주지
5일차	9월 5일 (木)	주지스님	법왕사 주지
6일차	9월 6일 (金)	혜광스님	대전법화사
7일차	9월 7일 (土)	각현스님	연꽃마을대표
8일차	9월 8일 (日)	혜성스님	삼불사주지
9일차	9월 9일 (月)	현웅스님	육조사 선원장
10일차	9월 10일 (火)	성범스님	구봉선원
11일차	9월 11일 (水)	지안스님	통도사 반야암
12일차	9월 12일 (木)	묘허스님	방곡사 회주
13일차	9월 13일 (金)	원일스님	진명사 주지
14일차	9월 14일 (土)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15일차	9월 15일 (日)	대주스님	대륜사
16일차	9월 16일 (月)	대현스님	정암사 주지
17일차	9월 17일 (火)	혜해스님	경산 반용사
18~20	9월 18일~20일	추 석 연 휴	
21일차	9월 21일 (土)	부명스님	백령도 몽운사 포교당(우리절)
22일차	9월 22일 (日)	영산스님	해룡사 주지
23일차	9월 23일 (月)	성담스님	효심사 주지

법왕사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